

“남편 힌츠페터에게 쓴 편지 읽고 많이 울었어요”

광주동초등 충효분교 학생에 답신 부인 브람슈테트 여사

“편지 보내준 학생·선생님께 감사… 모두 행복하길”

“남편 위르겐 힌츠페터에게 전한다는 편지를 읽고 계속해서 울고 또 울었어요.”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엘멜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가 광주 어린이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읽고 최근 보내 온 답장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광주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모델인 남편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동초등학교 충효분교 재학생 39명은 지난 8월 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모델인 위르겐 힌츠페터를 추모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부인인 엘멜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에게 편지를 썼다. 당시 김하연(5년) 양은 “힌츠페터 아저씨가 광주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함을 무릅쓰고 참혹하고 잔인한 5·18민주

화운동에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손편지운동본부를 통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눌러 쓴 수십통의 편지를 받아 본 브람슈테트 여사는 즉시 광주로 답신을 보냈다. 브람슈테트 여사는 “그 많은 사랑스러운 단어들, 또 고맙다는 말들을 돌아가신 나의 남편인 위르겐 힌츠페터에게 전한다는 편지를 읽고 계속해서 울고 또 울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남편 힌츠페터가 그림편지를 같이 볼 수 있었다면 아주 많이 기뻐하고 감동했을 것이다”며 “편지를 보내준 학생과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나라 한국에서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브람슈테트 여사의 답신을 받은 광주시는 2일 충효분교에 전달했다.



최근 독일 한인교포가 힌츠페터 부인(왼쪽)에게 광주동초등학교 충효분교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를 읽어주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한편 힌츠페터 기자는 독일 제1공영방송 일본 특파원으로 있던 1980년 5월20일, 신군부의 허락 없이 광주에 들어와 공수부대의 잔인한 시민학살 장면을 담은 영상을 독일로 송고했다. 또 5월23일 광주로 다시 돌아온 그는 마지막 진압작전까지 카메라에 담은 뒤 전세계에 광주에서 벌어진 만행을 최초로 알려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리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힌츠페터 사진전을 개최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각 정당대표 및 국회의원들은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1회 아시아문학상에 몽골 시인 우리앙카이 선정

내일 시상식… 상금 2000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고은)는 1일 열린 아시아문화페스티벌 환영리셉션에서 제1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로 몽골의 시인 담단수렌 우리앙카이(사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고은, 윌레 소잉가 등 4인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우리앙카이가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전통과 현대를 잃지 않고 장년의 지혜와 청년의 열정을 놓지 않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40년에 태어난 우리앙카이는 1977년부터 창작 활동을 시작한 몽골 시인



으로 “몽골 문학에 직관과 통찰의 영토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번 아시아문학상 은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페스티벌의 준비과정을 통해 후보작가가 추천되고 심사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고은 조직위원장,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윌레 소잉가, 시인이며 파리8대학명예교수인 끌로드 무샤르, 한국문학번역원장 김성곤 등 4인이 위촉되었

다.

조직위원회는 이 상의 제정 취지를 “아시아의 작가들이 남을 흉내 내지 않고도, 자신의 언어로 소통의 국경을 넘는 모범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아시아문학상은 아시아 출신 작가의 영광을 위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문학의 미학적 지평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작품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문학상 수상작가에게는 2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4일 오전 11시 아시아문화페스티벌 본 행사 ‘아시아의 아침’ 시간에 아시아문화전당 콘퍼런스홀에서 열린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유학생 라니 다스씨

한국화학회 우수 포스터상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사과정 재학생인 프로티바 라니 다스(Protiva Rani Das·방글라데시)씨가 최근 열린 (사)한국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프로티바 라니 다스씨는 은종방 교수의 지도로 ‘녹차 추출물의 생체접근율(bio-accessibility)에 대한 다른 추출 기술의 영향’을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했다. 녹차에 포함된 유용성분(카데킨)을 많이 추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다.

그는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 BK21+그린식품 및 식품소재 인재양성 사업팀(팀장 은종방·식품공학과 교수)에서 연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조선대 이채교씨

대학생프로젝트 대상

조선대학교는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4학년 이채교(사진)씨가 (사)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에서 주최한 제14회 대학생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김민재, 이용감씨는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채교(지도교수 신중호)씨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제련 공정 자동화 컨트롤’ 논문으로 상을 얻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현장견학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 이송자)는 지난달 30일 ‘소비자 HACCP 인증업체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소비자교육 전남도지부 제공〉

임기 만료 적십자 광주전남 부회장에 감사패



최상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가운데)은 지난 1일 임기가 만료된 박흥석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부회장(왼쪽·력기산 일 회장)과 유영희 부회장(광주대성학원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박준일(광주CBS 대기자)·강정숙씨 차남 현익(조선경제 금융증권부 기자)군, 이상휘·문미경씨 장녀 수진(로펌 변호사) 양=11월(토)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엘블레스 다이아몬드홀.

▲이형열·한혜숙씨 장남 종화군 김준원·김미자씨 딸 효선양=11월 4일(토) 오후 2시30분 서울 아칸벤션웨딩 아모르홀, 신부 피로연 10월 27일(금) 오후 5시30분 광주 알펜시아웨딩컨벤션 3층.

▲장승호(고흥 예비군중대장)·유선옥씨 장남 세명군 박상영(하나환경 대표)·이란(광주서산초등학교 교사)씨 딸 지현양=11월 4일(토) 오후 2시2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4층 디아망홀.

▲오명수(조경업)·박영희씨 장남 우석군 송승기(희망그룻백화점 대표, 남광주시장 상인회장)·이민순씨 딸 다희양=11월 4일(토)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4층 디아망홀.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영)월례회=11월 6일(월) 오후 6시 화랑궁하관 062-224-1800.

▲장흥 용산초등학교 제 51회 동창회=11월 25(토) 오후 1시 서울 사당역 14번 출구 제주복돈 010-3114-8998.

▲재경 장흥 용산중학교 제 10회 동창회=11월 25(토) 오후 6시 서울 사당역 13번 출구 정당은 010-2363-0124.

알림

▲월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2017 2차 민주유공자 소양강좌=11월 8일(수) 11시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대강의실에서 5·18민주유공자, 관련자(가족), 일반시민 등 대상. 강좌 주제 ‘변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문의 010-6624-6535.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발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을 위해 무료 상담 및 교육 실시 062-526-3370.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광주대학교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택, 나경/입향론, 비결록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장. 문의 010-3609-8117.

▲청춘FC 토요축구 회원 모집=축구를 사랑하는 50~60대 모집. 토요일 오후 2시30분 광주교육대학교 감독 010-2684-4490.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와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강좌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

유두석 장성군수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유두석 장성군수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선정됐다.

유 군수는 지난 1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 공로대상을 받았다.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시상위원회가 제정한 이 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부문, 봉사·선행·효행 등 일반 부문, 공직 부문 등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주는 상이



다. 유 군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컬러 마케팅인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장성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

로를 인정받았다.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는 사계절 내내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광주은행, 전남 문화관광 발전 1500만원 기부

전남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오영상)과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일 오전 재단 중화



의실에서 ‘전남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지역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지역 문화예술 후원 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는 광주은행은 전남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후원금으로 1500만원을 기부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문화예술프로그램 후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은행 마재필 부행장은 “문화예술로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민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으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문화신협, 금융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광주 문화신협이 제2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서민금융



부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일 문화신협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최중구 금융위원장과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을 비롯

한 금융발전 유공자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금융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문화신협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햇살론 6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실적과 서민지원대출 달성

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신협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3000여명의 조합원에게 293억원의 햇살론을 취급했으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248억원 1945건이 서민보증서 대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대 ‘일본사회의 탄생과 죽음’ 국제학술 심포지엄

동북아시아의 생사관 및 관련 문화를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비교·검토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원에서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현대 일본사회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제12회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전남대 일어일문학과·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CORE)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일본 교토에 소재한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의 아사미 마나미 교수와 울산대 노성환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이어 한국과 일본의 중견연구자 및 신진연구자 14명의 연구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문의 : 062-530-3210.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봅니다 弔	
201호 故학현전 남(남/78세) 子 : 박찬근 女/婿 : 박미경, 미현/전규현, 수희/박벽우 未亡人 : 염순남 ●발 인 : 11월 4일 ●장 지 : 화산도암선영	301호 故최인수 남(남/89세) 子/子婦 : 최경민/김미옥, 경인/최영숙, 경수/박미경, 경진/박현진 女/婿 : 최숙현/이동기, 현미/안정수 ●발 인 : 11월 3일 ●장 지 : 영락공원
402호 故이문순 남(여/91세) 子/子婦 : 정우창/김영순, 우영, 우중, 우석 女 : 정숙희 ●발 인 : 11월 3일 ●장 지 : 영락공원	101호 故김선호 남(남/55세) 子 : 김한수 女 : 김유진 ●발 인 : 11월 4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1 연락처 : 227-4382 연락처 : 227-4314 연락처 : 227-4000

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 호 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 제 길 www.mykumho.com